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강성진 · 유순화* · 최혜경
(부산대학교)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Basic Needs and Career Indecision

Seong-Jin KANG · Soonhwa YOO* · Hye-Kyoung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basic needs(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career indeci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060 female college students in B city. To analyze dat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sychological basic needs was generally high among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rades. Second, the level of career indecision was generally low and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rades. Third, the result of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basic needs and career indecision. Discussions and suggestions related to the results were provided.

Key words : Psychological basic needs, Career indecision, Female college students

I. 서론

직업을 가지는 것은 사회에서 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 입학할 때 학과의 선택이 직업세계 탐색 및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성적에 맞추거나 부모나 교사의 가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격적인 직업과 진로의 선택은 대학 재학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적절한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중요

한 때이다(Lee & Lee, 2000). 또한 미래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며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Lee, 2003).

특히 여대생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취업률은 그에 미치지 못해 최종학교 졸업 후 지속적인 진로발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Lee & Yu, 2009).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4.3%로, 67.4%인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보다 높다(Statistics Korea, 2013).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3년 대졸 남성의 취업률이 59.7%인 것에 비해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51.3%로 남자 대학생에 비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605, shyoo@pusan.ac.kr

해 취업률이 낮으며, 그 격차가 8.4%(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비해 여대생의 낮은 취업률은 진로발달에서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대생이 취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는 여성 가지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의 진로발달은 생애에서 겪는 독특한 경험이나 결정적인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Min, 2011). 젊은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결혼 및 임신, 출산은 여성의 진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경우, 결혼과 육아는 경력단절을 가져오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와 성별 분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많은 여성인력들이 취업과 승진, 보수 등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하기도 한다(Oh, 2006). 실제로 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대생의 경우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Yu, 2009).

이러한 여성이 가지는 상황적 어려움과 더불어 여대생의 진로 및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여대생이 보여주는 자기 결정능력 문제가 있다. Min(2011)에 의하면 여대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자신의 흥미에 대한 판단과 진로결정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취업에 대한 결정도 남학생에 비해 늦은 편이다 (Lee, 2013). 이는 여대생이 진로에 관한 자기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인해 여대생의 진로미결정 상태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진로와 취업에 관한 결정이 늦어지면 진로 개발을 위한 준비나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역시 늦어지게 되므로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여대생의 낮은 취업률에 또 다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대

생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자기 결정능력 문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조력 방안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또는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한다(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대학생 시기의 진로미결정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Song & Lee, 2013). 진로미결정을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았을 때 이는 곧 진로미결정이 자기결정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대생의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들이 진로에 관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기 이론의 하나인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미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성장 지향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성장경향성과 내적 동기를 증진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사회적 상황의 중요성을 더불어 강조하였다(Deci & Ryan, 2008). 이 이론에서는 인간에게 기본 심리 욕구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 보편적인 심리 욕구로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정도에 따라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증가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을 통해 내재적 동기가 증가되었을 때 인간의 동기, 수행, 발달이 촉진되므로(Deci, Vallerand, Pelletier, & Ryan, 1991),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은 진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은 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의사 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Lee, 2013), 특히

기본 심리 욕구 중 자율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진로 미결정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Han, 2004).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은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진로 미결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진로미결정과 기본 심리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변인들과의 관계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진로미결정과 기본 심리 욕구의 관계를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진로미결정을 가져오는 기본 심리 욕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히고, 특정 기본 심리 욕구가 불만족 되었을 때 진로미결정의 하위 요인 중 어떠한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 연구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기본 심리 욕구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내적 동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취업을 눈앞에 둔 4학년 여대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진로미결정 수준이 다른 학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 수준도 달라지고, 두 변인 간의 관계도 다른 학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학년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견된다면 여대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노력방안 또한 학년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여대생의 학년에 따라 검토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수준과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 정도가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이에 따라 다른 노력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와 진로미결정(외적 장애,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두 변인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여대생의 진로와 취업에 관한 결정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이 지각한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 미결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본 심리 욕구의 하위 요인들과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기본 심리 욕구(Psychological Basic Needs)

기본 심리 욕구는 Deci와 Ryan에 의해 등장한 대안적 동기이론인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가정된 개념이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조절되며,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수록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된다(Lee & Kim, 2008).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심리 욕구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욕구가 있다. 개인의 목표 추구하고 획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 심리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Deci & Ryan, 2000).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는 알맞은 사회적 맥락이 주어졌을 때 만족될 수 있으며, 이때 내재적 동기의 발생을 가져온다.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살펴보면, 첫째, 자율성의 욕구는 인간이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조절할 때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으로서,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Lee & Kim, 2008). 내재적 동기가 높을 때 자율성이 높으며, 어떤 행동이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고 유지하게 된다.

유능성의 욕구는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할 때 충족된다(Deci & Ryan, 2000). 유능성의 충족을 얻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고, 활동을 통해 기술과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된다(Lee & Kim, 2008). 이때 받은 긍정적 피드백은 내재동기를 증진시킨다. 결국 유능성은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는 것이다(Deci & Ryan, 2000).

관계성의 욕구는 자신의 환경 안에서 타인과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연결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이다(Deci, et al., 1991). 관계성은 자율성과 유능성 만큼 강력하게 내재적 동기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내재적 동기의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우선, 타인과의 안전한 관계가 지각되는 맥락일 때 내재적 동기가 보다 활발히 일어난다고 본다. 또한 관계성 욕구는 동기가 내재적이지 않고 외적으로 주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내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중요한 의미가 있는 타인으로부터 주어진 외적 동기는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내재화를 증진시켜서 쉽게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시킬 수 있으며 보다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기도 한다.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이 삶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자율성 지지 환경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불안을 줄이고 전반적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Chirkov & Ryan, 2001),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이 학업 성취와 학교생활 만족(Kim, Kim, & Hong, 2006), 자기주도 학습(Heo & Kim, 2012)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들

이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Han & Shin, 2009), 휴대폰 중독(Shin & Lee, 2013),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와도 관계가 있었다(Jung, Kim, & Kwon, 2012). 진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도 있었는데 Lee와 Lee(2010)는 기본 심리 욕구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으며, Guay 등(2003)은 부모와 또래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 욕구 중에서 특히 유능성과 자율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 Lee(2013)의 연구에서도 기본 심리 욕구가 진로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기본 심리 욕구는 인간 행동과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진로와 관련된 여러 변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2.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

진로미결정은 스스로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선택을 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로, 오랫동안 진로 심리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Osipow, 1999). 그러나 진로미결정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데, 이는 진로미결정 상태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Jung, Kim, & Kim, 2008).

진로미결정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진로 결정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초점을 맞추어 미결정 집단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Shin, 2010). 그러나 초기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는 미결정 상태의 특징이나 정도를 측정할 평가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으므로(Osipow, 1999) 내담자들이 결정 상태인지 혹은 미결정 상태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후 미결정 집단을 발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미결정(indecision) 집단과 성격적인

문제로 인한 미결정(indecisiveness) 집단으로 나누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Fuqua & Hartman, 1983). 발달적 미결정 집단은 진로나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미결정 상태에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성격적 문제로 인한 미결정의 경우 진로의 문제에만 국한된 미결정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어 오는 이른바 만성적(chronic)인 미결정 상태이다. Osipow (1999)는 미결정의 상태에 따라 더 효과적이고 더 적절한 상담적 개입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진로미결정을 서로 다른 표현양상과 원인들을 지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아(Shin, 2010), 척도 개발을 통해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와 진로미결정의 하위 유형을 나누어 미결정 상태 사람들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미결정의 원인에 관한 연구로, Chartrand, Robbins, Morrill, & Boggs(1990) 등은 진로 미결정의 인지적인 요인들과 정서적인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살핀 Career Factors Inventory(CFI)를 개발하였으며, Gati, Krausz, & Osipow(1996) 등은 Career 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CDDQ)를 개발하여 진로미결정을 진로 의사결정 과정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진로미결정의 원인들을 밝혔다. 또한 Tak과 Lee(2003)는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K-CII)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등 총 5가지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진로미결정의 외적, 내적 원인들을 고루 포함하고 있는 Tak과 Lee(2003)의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K-CII)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진로미결정의 하위유형을 나누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Gordon(1998)은 문헌고찰을 통해 확실하게 결정된, 어느 정도 결정된, 불안정하게 결정된, 임시미결정상태, 발달적인 미결정상태, 심각한 미결정 및 만성적 미결정 상태 등으로 진로결정의 하위유형을 정리하였다. Cohen, Chartrand와 Jowdy(1995)는 미결정집단을 결정할 준비가 되어있는 집단, 발달적 미결정 집단, 선택불안집단, 만성적 미결정집단 등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자아정체성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Song과 Lee(2013)는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전반적인 미결정형, 전통적 여성형, 동기부족형, 만성적 우유부단형, 내적 갈등형의 5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다양한 변인들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 불안(Fuqua, Newman, & Seaworth, 1988; Lee, Du, Rhee, Jang, Jung, & Lee, 2013), 완벽주의(Leong & Chervinko, 1996) 등은 진로미결정 수준을 높였으며, 심리적 독립(Tokar et al., 200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z & Luzzo, 1996; Taylor & Betz, 1983), 애착(Yoo, 2004), 사회적 지지(Han, 2003) 등은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진로미결정과 관계있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개인내적 변인들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을 같이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3.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최근 들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이 교육, 육아, 건강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Ryan & Deci, 2000),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Lee, 2013). Ryan와 Deci(2000)에 따르면 기본 심리 욕

구의 충족을 통해 개인의 건설적인 사회성 발달과 개인 내적인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성장하고 통합하는 성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여대생의 진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미결정이 초래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여대생들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불리한 취업 여건과 관련하여 볼 때,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여대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적 여건 등의 문제를 크게 지각하더라도,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자체 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지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이다(Lee & Yu, 2009). 즉, 내재적 동기가 높을 경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진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Lee, 2013). 따라서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 정도가 높은 것은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것이며, 이는 여대생으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낮은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미결정은 다양한 개인 내외적 변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진로미결정의 원인과 그에 대한 조력 방안을 살피는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내적, 사회 맥락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 심리 욕구는 내재적 동기와 관련된 개인내적 개념이지만,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적으로 적절한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Deci et al., 1991). 따라서 진로미결정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본 심리 욕구가 있다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력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진로미결정을 낮추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과 기본 심리 욕구의 관계를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 파악을 통해 진로미결정의 원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에 대해 살펴보아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12월부터 약 2주간 대상자에게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총 1,23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78부를 제외한, 총 1,06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기본 심리 욕구

기본 심리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Deci와 Ryan(2000)이 제작한 기본 심리 욕구 척도(BPNS)를 Lee(200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자율성은 자신의 가치에 의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 유능성은 개인의 능력으로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며, 관계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호작용을 하며 소속되는 감정을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4점으로 측정되었다. 5문항은 역산문항으로, 역채점을 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008)가 보고한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율성 .70, 유능성 .75, 관계성 .79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가 .88이었고, 자율성 .82, 유능성 .81, 관계성 .81이

었다.

2)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 진로미결정 검사(KCI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결정 시 지각하는 어려움의 내용과 지각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외적 장애,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의 5개의 하위 요인이 있으며, 총 22문항이다. 외적 장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주위의 반대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포함되고, 우유부단한 성격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직업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이다. 직업정보 부족은 직업의 전망과 그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고, 자기명확성 부족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지 못한 정도이며, 필요성 인식 부족은 직업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4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k과 Lee(2003)의 연구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81, 외적 장애 .62, 우유부단한 성격 .77, 직업정보부족 .68, 자기명확성 부족 .69, 필요성 인식 부족 .54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는 .81, 외적 장애 .77, 우유부단한 성격 .82, 직업정보부족 .84, 자기명확성 부족 .90, 필요성 인식 부족 .83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학년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만일 학년 별 차이가 있을 경우 두 변인 간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학

년별로 자료를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본 심리 욕구의 하위요인들과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구조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 심리 욕구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인들과 두 개 이상의 종속변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다변량분석기법으로, 다수의 독립변인들과 하나의 종속변인의 관계를 연구하는 중다회귀분석에 비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집단으로서의 관계와 관계에 기여하는 각 개별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다.

IV. 결 과

1.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에 대한 기술통계 및 학년별 차이

<Table 1>에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 전체에서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총점이 최소 18점에서 최대 72점까지이며 중간 점수가 45점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대상 여대생들의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의 전체 평균은 53.96으로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정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로미결정에서는 척도의 총점이 22점에서 88점까지이며 55점이 중간 점수이므로, 진로미결정의 전체 평균 결과인 47.27은 중간 점수보다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요인에서 필요성 인식부족과 외적장애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미결정의 인식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년별로 두 변인의 평균점수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학년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도 달라질 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1 st grade (N=238)	2 nd (N=299)	3 rd (N=294)	4 th (N=229)	total (N=1060)	Min-Max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psychological basic need	52.82(6.71)	53.63(7.03)	54.47(6.22)	54.93(6.99)	53.96(6.77)	18-72
autonomy	17.87(3.04)	18.18(2.96)	18.66(3.06)	18.72(2.85)	18.36(3.00)	6-24
competence	16.24(2.72)	16.52(2.94)	16.67(2.75)	17.05(3.12)	16.61(2.89)	6-24
relatedness	18.71(2.62)	18.99(2.66)	19.13(2.33)	19.30(2.59)	19.03(2.55)	6-24
career indecision	50.45(9.17)	48.88(9.18)	46.01(9.65)	43.61(10.14)	47.27(9.84)	22-88
external barrier	7.09(2.32)	6.98(2.32)	6.59(2.33)	6.71(2.25)	6.84(2.31)	4-16
indecisiveness	9.85(2.52)	9.56(2.58)	9.32(2.83)	8.80(2.61)	9.39(2.67)	4-16
lack of information	15.61(3.50)	15.68(3.66)	14.76(3.50)	13.72(3.99)	14.98(3.73)	6-24
lack of self-identity	9.73(3.03)	9.58(3.05)	9.39(3.13)	8.66(2.94)	9.36(3.06)	4-16
lack of necessity	8.10(2.75)	7.07(2.59)	5.96(2.36)	5.75(2.16)	6.71(2.64)	4-16

있으므로 ANOVA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Table 2>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기본 심리 욕구는 4학년이 1학년 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으며(F=4.61, p<.01), 진로미결정은 1, 2학년이 3학년과 4학년 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왔다(F=23.95, p<.001). 기본 심리 욕구의 하위요인에서는 자율성(F=4.56,

p<.01)과 유능성(F=3.26, p<.05)에서 학년별 차이가 있었으며, 진로미결정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시기가 임박한 4학년의 경우, 두 변인 모두 타 학년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서 4학년과 1, 2, 3학년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Table 2> Difference of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level on grade

		SS	df	MS	F	Scheffe
psychological basic need	group	626.69	3	208.90	4.61**	4 th >1 st (grade)
	error	47090.70	1039	45.32		
autonomy	group	122.000	3	40.667	4.56**	4 th =3 rd >1 st (grade)
	error	9328.329	1047	8.910		
competenc	group	81.217	3	27.072	3.26*	4 th >1 st (grade)
	error	8751.898	1054	8.304		
career indecision	group	6524.83	3	2174.95	23.95***	1 st =2 nd >3 rd >4 th (grade)
	error	93531.50	1030	90.81		
external barrier	group	43.448	3	14.483	2.72*	1 st >2 nd >4 th >3 rd (grade)
	error	5573.081	1048	5.318		
indecisiveness	group	139.670	3	46.557	6.65***	1 st =2 nd >4 th (grade)
	error	7362.023	1052	6.998		
lack of information	group	612.358	3	204.119	15.27***	2 nd >3 rd >4 th , 1 st >4 th , 2 nd =1 st , 1 st =3 rd (grade)
	error	13997.399	1047	13.369		
lack of self-identity	group	158.481	3	52.827	5.70**	1 st =2 nd >4 th (grade)
	error	9758.287	1053	9.267		
lack of necessity	group	871.616	3	290.539	47.28***	1 st >2 nd >3 rd =4 th (grade)
	error	6464.551	1052	6.145		

***p<.001, **p<.01, *p<.05

또한 기본 심리 욕구의 하위요인들과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본 심리 욕구의 3가지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미결정의 5가지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1) 1, 2, 3학년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정준상관분석에 앞서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3>에 1, 2, 3학년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기본 심리 욕구 총점과 진로미결정 총점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r = -.55, p < .01$). 하위요인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은 진로미결정의 총점 및 하위요인들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관계성은 대체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자율성은 우유부단한 성격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r = -.56$), 다음으로 자기명확성 부족($r = -.39$), 외적장애($r = -.37$)의 순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유능성은 우유부단한 성격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 = -.52$), 다음으로 자기명확성 부족($r = -.41$)의 순으로 상관을 보였다. 이들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자율성과 유능성을 높이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변인 간의 단순상관의 결과라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의 각 하위요인군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Table 3> Correlations of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on 1st, 2nd, 3rd (N=831)

	career indecision	external barrier	indecisiveness	lack of information	lack of self-identity	lack of necessity	psychological basic need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career indecision	-	.54**	.68**	.77**	.75**	.54**	-.55**	-.52**	-.45**	-.33**
external barrier		-	.29**	.29**	.19**	.17**	-.35**	-.37**	-.18**	-.29**
indecisiveness			-	.35**	.48**	.15**	-.58**	-.56**	-.52**	-.29**
lack of information				-	.47**	.25**	-.25**	-.24**	-.23**	-.12**
lack of self-identity					-	.24**	-.44**	-.39**	-.41**	-.25**
lack of necessity						-	-.22**	-.20**	-.12**	-.20**
psychological basic need							-	.82**	.80**	.77**
autonomy								-	.48**	.45**
competence									-	.44**
relatedness										-

** $p < .01$

<Table 4>는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정준상관

함수가 산출되었다. Wilks' Lambda값에 의하면 제 1정준상관함수(Wilks' $\lambda = .49, ***p < .001$)와 제 2정준상관함수(Wilks' $\lambda = .91, ***p < .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인인 기본 심리 욕구와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의 두 정준함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Wilks'

Lambda값은 1에 가까울수록 실제적인 의미가 낮아지므로 제1정준상관함수만을 해석하였다.

<Table 4> Canonical functions for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on 1st, 2nd, 3rd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
Canonical Correlations	.68	.28	.08
Wilks' Lambda	.49	.91	.99
Chi-square	560.18***	71.09***	4.53
df	15	8	3

***p<.001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제1정준상관함수의

정준부하량과 정준교차부하량이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5> Canonical solution for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Function 1 on 1st, 2nd, 3rd

		Function 1	
		Canonical Loadings	Cross Loadings
psychological basic need	autonomy	-.91	-.62
	competence	-.81	-.55
	relatedness	-.54	-.37
	variance		.59
	redundancy index		.27
career indecision	external barrier	.49	.34
	indecisiveness	.93	.63
	lack of information	.41	.28
	lack of self-identity	.69	.47
	lack of necessity	.28	.19
	variance		.37
	redundancy index		.17

Tabachnick와 Fidel(1996)은 정준상관분석에서 각 변인이 유의하기 위해서는 부하량의 계수가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준부하량에서 기본 심리 욕구의 경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정준상관함수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이 높은 부하량을 보임으로써 정준상관함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진로미결정은 5개의 하위요인 중 필요성 인식 부족을 제외한 4개 요인이 정준상관함수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이 중 우유부단

한 성격과 자기명확성 부족의 기여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정준교차부하량을 살펴보면 기본 심리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모두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군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으며,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이 진로미결정과 보다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의 경우에는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 외적장애가 기본 심리 욕구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으며, 이 중 우유부단한 성격과 자기명확성이 기본 심리 욕구의 설명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를 했음을 볼 수 있다. 직업정보의 부족과 필요성 인식 부족은 기본 심리 욕구와 부적상관이 있지만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1, 2, 3학년 여대생들의 자율성, 유능성이 낮을수록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자기명확성이 부족하게 되어 진로미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심리 욕구의 정준중복지수는 .27이며, 진로미결정의 정준중복지수는 .17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이 기본 심리 욕구를 27% 설명하고, 기본 심리 욕구의 하위요인이 진로미결정을 17% 설명함을 의미한다.

2) 4학년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4학년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관계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기본 심리 욕구 총점과 진로미결정 총점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r=-.58, p<.01$). 하위요인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은 진로미결정의 총점 및 하위요인들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관계성은 이 두 변인들에 비해 상관이 좀 더 낮았다. 자율성은 우유부단한 성격($r=-.50$), 자기명확성 부족($r=-.40$), 외적장애($r=-.39$)의 순으로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유능성은 우유부단한 성격($r=-.50$), 자기명확성 부족($r=-.42$), 직업정보 부족($r=-.35$)의 순으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결과는 1, 2, 3학년 여대생의 상관관계 양상과 비슷하지만, 관계성의 상관계수는 1, 2, 3학년 여대생에 비해 증가하였다.

<Table 6> Correlations of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on 4th (N=229)

	career indecision	external barrier	indecisiveness	lack of information	lack of self-identity	lack of necessity	psychological basic need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career indecision	-	.65**	.72**	.85**	.75**	.54**	-.58**	-.52**	-.50**	-.43**
external barrier		-	.37**	.46**	.24**	.37**	-.41**	-.39**	-.29**	-.36**
indecisiveness			-	.47**	.51**	.22**	-.52**	-.50**	-.50**	-.29**
lack of information				-	.58**	.29**	-.36**	-.32**	-.35**	-.26**
lack of self-identity					-	.23**	-.46**	-.40**	-.42**	-.32**
lack of necessity						-	-.31**	-.27**	-.21**	-.32**
psychological basic need							-	.86**	.84**	.77**
autonomy								-	.60**	.52**
competence									-	.44**
relatedness										-

** $p<.01$

<Table 7>은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정준상관함수가 산출되었다. 이 중, Wilks' Lambda값을 고

려하여 제1정준상관함수(Wilks' $\lambda=.49, ***p<.001$)만을 해석하였다.

<Table 8>에 제1정준상관함수의 정준부하량과 정준교차부하량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역시

각 부하량의 계수가 .30 이상인 것을 해석하였다. 먼저 정준부하량을 살펴보면, 기본 심리 욕구의 경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모두 높은 부하량으로 정준상관함수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진로미결정 역시 5개의 하위요인 모두 정준상관함수의 형성에 기여했는데, 이 중 특히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 외적장애의 기여도가 높았다. 정준교차부하량에서는 기본 심리 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진로미결정의 설명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진로미결정의 경우에는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명

확성 부족, 외적장애, 직업정보 부족이 기본 심리 욕구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 인식 부족은 기본 심리 욕구와 부적 상관관계이지만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4학년 여대생들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낮을수록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자기명확성이 부족하며, 외적장애와 직업정보 부족을 높게 인식함을 보여준다. 정준중복 지수는 각각 .27, .18로, 진로미결정이 기본 심리 욕구를 27% 설명하고, 기본 심리 욕구가 진로미 결정을 18% 설명한다.

<Table 7> Canonical functions for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on 4th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
Canonical Correlations	.63	.27	.12
Wilks' Lambda	.55	.91	.99
Chi-square	129.52***	19.60*	2.90
df	15	8	3

*** $p < .001$, * $p < .05$

<Table 8> Canonical solution for psychological basic need and career indecision Function 1 on 4th

		Function 1	
		Canonical Loadings	Cross Loadings
psychological basic need	autonomy	-.91	-.58
	competence	-.83	-.52
	relatedness	-.71	-.45
	variance		.67
	redundancy index		.27
career indecision	external barrier	.67	.43
	indecisiveness	.85	.54
	lack of information	.57	.36
	lack of self-identity	.73	.46
	lack of necessity	.46	.29
	variance		.45
	redundancy index		.18

1, 2, 3학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관계성과 외적 장애의 정준부하량은 1, 2, 3학년의 결과보다 크게 증가하여 정준상관함수의 형성에 관계성과 외적장애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정준교차부하량에

서는 관계성, 외적장애, 직업정보 부족이 증가하였다. 이는 1, 2, 3학년 여대생들은 기본 심리 욕구 중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4학년이 되면 여기에 관계성의 영향까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학년이 되면 1, 2, 3학년 때 알지 못했던 외적장애와 직업정보의 부족까지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V.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그들이 지각한 진로미결정의 원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통계적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결과와 그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변인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의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수준과 진로미결정 수준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다. 4학년 여대생의 경우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미결정 수준은 가장 낮았다. 진로결정수준의 학년별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Jang, 2003; Lee, 2007)은 진로결정수준이 학년별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취업난에 대한 대처로, 여대생들이 취업에 압박해진 4학년에 이르러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결정을 이전에 비해 빨리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본 심리 욕구의 하위요인과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에 대한 정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의 학년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1, 2, 3학년과 진로결정에 압박한 학년인 4학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1, 2, 3학년의 경우 자율성, 유능성이 낮을 때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자기명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성(-.62)과 유능성(-.55)이 관계성(-.37)에 비해 진로미결정에 높은 상관이 있었고 특히, 진로미결정

의 하위요인 가운데 우유부단한 성격(.63)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으며, 자기명확성 부족(.47)과도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는 1, 2, 3학년 여대생의 경우,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인지하게 되며 자기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진로 미결정 상태를 발달적 미결정(indecision)과 성격적 미결정(indecisiveness)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므로(Fuqua & Hartman, 1983), 1, 2, 3학년 여학생들이 단지 진로문제에서만 결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미결정(indecisiveness)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격적 미결정 상태에 있는 학생의 경우 진로 교육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탐색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도울 수 있다.

Deci 등(1991)의 연구에 의하면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즉 개인을 자율적이고, 유능하고, 관계성을 가지게 하는 환경에서 그 개인의 동기와 수행과 발달이 최대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자율성과 유능성을 만족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1, 2, 3학년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여성의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내적인 문제를 치유하여 자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실제 훈련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우유부단한 성격적 측면을 이해하고 자기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진로 교육 장면에서 진로 전문가는 학생의 기본 심리 욕구를 지지하여 그들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Han & Shin, 2010).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교육의 경우 진로 전문가는 학생의 진로미결정을 줄이기 위해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의 만족을 위한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율

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학생이 설정한 진로 목표를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진로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업세계와 자신의 성격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 탐색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며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취업의 목표가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설정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유능성의 지지를 위해서 진로 전문가 학생의 성취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진로지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계획하고 평가하게 하여 학생이 자신의 성취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학생이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행동적 목표들을 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능성 욕구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학년 여대생의 경우, 1, 2, 3학년의 경우와는 달리 자율성(-.58), 유능성(-.52), 관계성(-.45) 모두 진로미결정과 고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에서도 우유부단한 성격(.54), 자기명확성 부족(.46), 외적장애(.43), 직업정보 부족(.36) 등이 정준상관함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필요성 인식 부족도 .29의 상관을 보여 거의 모든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이 기본 심리 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가지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이 모두 진로미결정의 다양한 원인들과 부적의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계성은 1, 2, 3학년 여대생보다 4학년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욕구는 내재적 동기를 유지시키고, 외적으로 주어진 동기를 내재화 시키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eci & Ryan, 2000). 타인과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연결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취업과 진로에 대한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외적 동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졸업을 앞두고 부모나 사회적 상황 등 외부의 영향을 받아 진로와 취업에 대한 결정을 했을 경우,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재적 동기를 일으키거나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4학년 여대생의 경우 이미 진로 결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자신의 내재적 욕구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진로 결정에 외부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면 그 경우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하거나, 같은 진로 방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돕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4학년 여대생의 경우 1, 2, 3학년과는 달리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의 정준교차부하량이 대부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기본 심리 욕구가 진로미결정의 다양한 원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학년 여대생은 기본 심리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우유부단한 성격과 자기명확성 부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1, 2, 3학년의 경우보다 외적장애를 더 크게 지각하게 되며, 직업정보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면서 정서적인 지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멘토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취업과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을 함께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한 4학년 여대생을 위한 진로 교육에서 진로 전문가는 3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고루 지지할 수 있는 교육 장면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1, 2, 3학년 학생들에 비해 관계성 욕구 만족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과 더불어 진로와 취업의 선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찾도록 돕고, 진로 및 취업 목표의 내면화 수준을 파악하여 내적 욕구를 높이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기본 심리 욕구는 진로미결정과 명확한 관계가 있으며, 1, 2, 3학년의 경우 자

울성과 유능성이, 4학년의 경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가 진로미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본 심리 욕구 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는 개인에게 알맞은 사회적 맥락이 주어졌을 때 만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내재적 동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대생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년별로 차별화된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의 지원 방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진로와 취업에 관한 결정을 돕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학년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대생에게 학년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여대생에게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여대생들은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의 취업과 진로 특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형태의 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학생의 진로미결정과 기본 심리 욕구간의 관계 양상이 여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남 여학생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성별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에 따른 하위 요인과 기본 심리 욕구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그러나 진로미결정은 연구자에 따라서 그 원인이거나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을 다른 이론적 배경에 따른 하위 유형들과 기본 심리 욕구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etz, N. E. & Luzzo, D. A.(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13~428.
- Chartrand, J. M. · Robbins, S. B. · Morrill, W. H. & Boggs, K.(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490~501.
- Chirkov, V. I. & Ryan, R. M.(2001). Parent and teacher autonomy-support in Russian and U.S. Adolescents: Common effects on well-being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2, 618~635.
- Cohen, C. R. · Chartrand, J. M. & Jowdy, D. P.(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0~447.
- Deci, E. L. & Ryan, R. M.(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 Ryan, R. M.(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49(3), 182~185.
- Deci, E. L. · Vallerand, R. J. · Pelletier, L. G. & Ryan, R. M.(1991).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325~346.
- Fuqua, D. R. & Hartman, B. W.(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1), 27~29.
- Fuqua, D. R. · Newman, J. & Seaworth, T. B.(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68.

- Gati, I. · Kra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uay, F. · Senecal, C. · Gauthier, L. & Fernet, C.(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Gordon, V. N.(1998). Career decidedness types: A literature re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386~403.
- Han, Ju-Oak(2004).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between Self-determin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Indecis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Han, Soo-Hyun(2003).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 Han, Soyung & Shin, Heecheon(2009).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ubjective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2), 439~464.
- Han, Soyung & Shin, Heecheon(2010).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experiences of clients and counseling outcom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4), 901~929.
- Heo, Ye Bin & Kim, Ahyoung(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4), 1075~1096.
- Jang, Seon-Ryang(2003). The Effect of Type of Personality and Grade Level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 Jung, Ae-Kyung · Kim, Kay-Hyon, & Kim, Dong-Min(2008). A Meta-Analysis on the Studies of Career Indecis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551~564.
- Jung, Min Sun · Kim, Hyun Mi & Kwon, Hyoun Yong(2012).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Management on the Association of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 159~174.
- Kim, Jooan · Kim, Eun-Joo & Hong, Sehee(2006).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 243~264.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3). Employment Statistics in 2013, <http://kess.kedi.re.kr>
- Lee, Bo-Hyun · Du, Xin · Rhee, Eun-Jeong · Jang, Sun-Hee · Jung, Sun-Hwa & Lee, Sang-Min(2013).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Trai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 1383~1400.
- Lee, Bork-Hee(2007). Factor Influencing Career Decision Making in Adolescent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4(2), 19~35.
- Lee, Ki-Hak(2003). Differences Between Four Types of Career Choi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Fact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1), 13~21.
- Lee, Ki-Hak & Lee, Hak-Joo(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 Lee, Myunghee(2008). A Study in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for Korean,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Lee, Myunghee, & Kim, Ahyoung(2008).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4), 157~174.
- Lee, Sook-jeong(2013). The Effect of Psychological Basic Needs of College Women in Korea on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Mediated by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Asian Women* 51(1), 103~130.
- Lee, Sook-Jeong & Yu, Ji-Hyun(2009). A Causal Model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Stress,

-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48(2), 35~64.
- Lee, Sung-Sik & Jung, Chyul-Young(2007). A Casual Model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9(4), 83~109.
- Lee, Ye Jin & Lee, Ki Hak(2010). Subtyp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2), 267~287.
- Leong, F. T. & Chervinko. S.(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 Min, Moo-Suk(2011).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Tasks of Universities for Employment Support,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 77~107.
- Oh, J.(2006). Achievement and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for women in Korea, *Asian Women* 22(1), 27~44.
- Osipow, S. H.(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 Ryan, R. M. & Deci, E. I.(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hin, Bo-Ra & Lee, Hee-Kyung(2013). The Effects of Adolescent's Moth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Addiction :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through Friendship Qua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 1~22.
- Shin, Jong Im(2010).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Parent Support, and Self-Identity on Career Indecision,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 Song, Ji-Eun & Lee, Jungyoon(2013). The Study on Subtype of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Career Indec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4), 2107~2123.
- Statistics Korea(2013). Women's life with Statistics in 201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6961.
- Tabachnick, B. G. & Fidell, L. S.(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2nd ed.), New York: Haper Collins.
- Tak, J. & Lee, K.(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okar, D. M. · Withrow, J. R. · Hall, R. J. & Moradi, B.(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3~19.
- Yoo, Jee-Sun(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 논문접수일 : 2014년 07월 13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8월 19일
2차 - 2014년 09월 0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11일